

# 아이들은 체험 클래스, 엄마는 힐링... “키캉스로 진정한 휴식”

(키즈+바캉스)

## 호텔업계, 휴가철 패키지 붐물

어린이·부모 분리, 단독휴식 보장  
액티비티 전문 인력 등 따로 투입  
아이들, 당근 수확 등 체험 클래스  
부모들, 요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

‘키캉스(키즈+바캉스)’ 패키지 상품이 출시되는 흐름 속에서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위한 호텔 서비스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5월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맞춤형 키캉스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동시에 부모들만 따로 온전히 휴식을 원한다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및 여가 분야에서 가족 단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직후 ‘키즈 펜션’, ‘키즈 풀빌라’ 검색량이 각각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85%, 57%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을 시작으로 호텔업계는 매년 여름 어린이를 겨냥한 다양한 키캉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서머 키즈 캠프 패키지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 /켄싱턴호텔 평창

에도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 대상의 객실 패키지 ‘JW 키즈 블리스’ 상품을 선보였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도 ‘키즈 체험 아트 클래스’ 등 어린이 중심의 휴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뿐 아니라 젊은 부모층도 온전한 휴식이 있는 휴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부모들의 요구를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맘 웰니스 클래스’를 기획했다. 한화리조트 거제에서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거

제의 몽돌해변이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명상, 요가 등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인바디 측정을 위한 1:1 건강 상담, 모닝 요가, 힐링 명상, 수면 개선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한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심신의 안정을 위한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해당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서 맘 웰니스 클래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리조트 ‘맘 웰니스 클래스’에 참여한 젊은 엄마들이 요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랜드파크도 어린이들을 위한 키캉스 상품을 준비했지만, 그 속에는 부모의 온전한 쉼을 위한 배려가 녹아들어 있었다. 최근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 평창은 어린이 고객을 위한 ‘키즈&사이언스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오로지 아이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부모들은 키즈월드 내 카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부모들에게 무료 커피도 제공한다.

또한 켄싱턴호텔 평창은 키즈 체험

프로그램에 호텔 액티비티 전문 인력을 따로 투입해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부모의 휴식을 보장한다. 실제로 동물 먹이 주기, 당근 수확 등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프렌치 가든 키즈 캠프’에는 호텔 액티비티 전문가 ‘케니’가 함께 한다.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오모씨는 “아이도 즐기고 부모도 휴식할 수 있는 호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만 따라다니면 기쁨 쉬어도 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정관장 “편의점서 간편하게 에너지 충전”

###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2종 쓴 맛 줄여 부담 없이 섭취 가능 신제품으로 시장 라인업 강화

정관장이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사진)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편의점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는 인삼농축액 분말에 페퍼민트 맛을 더해 건강과 상쾌함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허브추출물을 담아 입 안에서 기분 좋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씹는 재미가 가득한 초소형 크런치 제형으로 식후는 물론 업무, 공부 중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에브리타임 맥스’는 인삼농축액 1500mg에 비타민B군, 판토텐산, 아미노산을 더한 복합 설계로 일상의 에너지를 끌어올린 제품이다. 레몬농축액을 더해 쓴 맛은 줄이고 달콤 쌉싸름한 맛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정관장은 최근 접근성이 우수한 편의점에서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신제품 2종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편의점 카운터 매대도 검과 사망 대신 건강 식품으로 채워지는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관장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 ‘활기력’, ‘홍삼원’ 등을 선보이며 편의점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과 ‘활기력’은 각각 연간 100만개 이상이 편의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정관장의 대표 음료제품인 ‘홍삼원’은 병과 파우치 등 간편하고 휴대하기 좋은 형태로 2000년대 초반 편의점에 입점하여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정관장은 맛과 제형을 한층 다양화한 이번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신제품 출시로 간편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취향과 입맛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 종근당, 바르는 소염진통 ‘케렘겔’ 선택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 마사지볼 적용

종근당이 기존 겔 파스 제제의 불편함을 극복한 차별화된 일반의약품을 선보인다. 종근당은 바르는 소염진통제 ‘케렘겔’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종근당에 따르면 ‘케렘겔’은 케토프로펜 3mg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관절염, 근육통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겔 유형으로 출시돼 통증 부위에 직접 도포하면 되는데,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로 마사지볼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부에 겔을 바르고 스테인리스 마사지볼을 굴러주는 방식이다. 종근당은 케렘겔 마사지볼이 약물 흡수를 높이고 근육을 풀어주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케렘겔’ /종근당

다. 종근당은 케렘겔이 쉽고 편리하게 통증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케렘겔이 토출되는 부위와 마사지볼을 분리 설계해 제품 오염을 방지했다는 것이 종근당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무신사 29CM

### ‘뷰티풀 무브’ 콘텐츠

무신사 편집숍 ‘29CM’가 운동하는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무신사의 29CM가 스포츠 종목 및 운동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29CM는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여성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 협업 콘텐츠 ‘뷰티풀 무브’를 선보인다.

뷰티풀 무브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인터뷰와 단독 혜택 기획전을 결합한 연재 콘텐츠다. /안재선 기자

## LG생활건강, 라인프렌즈 컬래버 에디션 선택

‘코드 글로컬러’ 팩트·틴트 등 6종

LG생활건강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메이크업 브랜드 ‘코드 글로컬러’에서 ‘라인프렌즈 미니니 스페셜 에디션’ 6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은 ‘IPX’와 협업한 것으로, 프라이머·팩트·아이 프라이머·틴트·립세린·멜팅 스틱 등 6종류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코드 글로컬러 대표 제품인 ‘픽스온 프라이머’의 경우, 해당 제품이 인기 캐릭터 ‘레니니’가 슝털 피부를 유지



코드 글로컬러 ‘라인프렌즈 미니니 스페셜 에디션’ 6종. /LG생활건강

하는 비결이라는 재치 있는 이야기가 설정됐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색다른 재미를 느끼며 보송하고 매끈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학·취준생 멘토링 진행

‘여름에 뭐하니?’ 소통 행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래 바이오 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를 펼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여름에 뭐하니?’를 기획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여름에 뭐하니?’는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인 에피스쿨’과 회사 설명회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으로 구성됐고, 각각 오는 22일과 28일 진행된다.

‘멘토링 인 에피스쿨’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이 참가자들과 직접

만나 회사 및 직무 소개, 필요 역량, 취업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랩 투어, 임원 특강 등도 전개해 참가자들이 바이오 사업 현장에서 개발 프로세스를 더욱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에서는 온라인으로 현직자들과 참가자들이 취업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멘토링 인 에피스쿨’은 오는 11일까지,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은 23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